

출신고교 () 수험번호 () 성명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임.
- 2. 답안에 문항 번호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시작할 것.
-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 5. 제목을 쓰지 말 것.
- 6. 답안 작성은 흑색 펜만을 사용할 것.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시오.

<제시문 A>

The essential feature of language is that it is used in communication, and some scholars argue that language can operate in communication without context. They say that language is a matter of logic and a correct use of language presupposes¹ the use of logic. Logic is a self-defined system that can be proved completely and objectively. According to this view, sentences can be used unambiguously and few errors would occur in communication. Thus, a sentence can work well for communication without its context. This claim is based upon the belief that language is a logical system that consists of vocabulary and sentence-forming rules.

- Adapted from Jacob Mey, *Pragmatics* -

¹ 전제(前提)하다

<제시문 B>

Distortion of the message can take place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unless appropriate discourse¹ context is provided. In this sense, language cannot work for communic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We may often hear someone use a quotation - for example, in defense of a political opinion or a religious viewpoint - only to hear someone else counter, "But that's not really what he (the original speaker) meant! You've taken it completely out of context!" We also become frustrated when something we have said is taken out of context, feeling as though we have been misquoted. We know intrinsically² that to ignore the original context of an utterance³ can misrepresent the speaker's intentions. Experiences like these tell us that context can affect an utterance's mean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 and meaning.

- Bergmann et al., *Language Fil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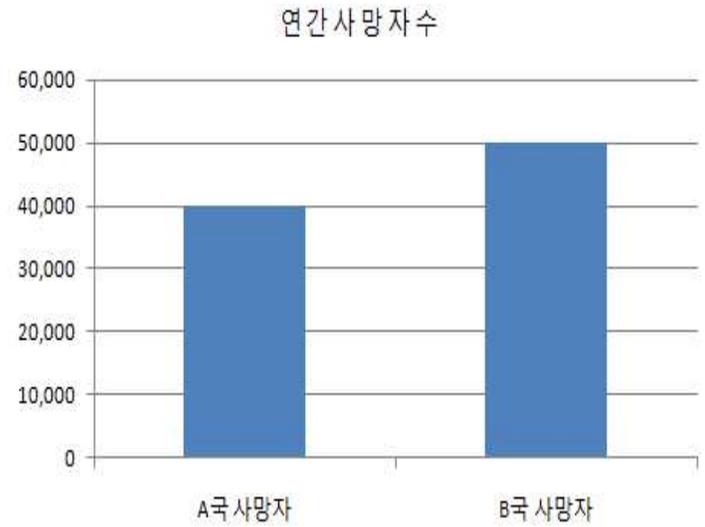
¹ 담화(談話) ² 본원(本源)적으로 ³ 발화(發話)

(자료 1)

미국의 ABC 번역회사는 컴퓨터 자동번역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번역의 기본 원리는 출발언어(source language)의 단어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의 단어로 대치하면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장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문맥 없이 단어들의 연결만으로도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ABC 번역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몇몇 컴퓨터 자동번역기 회사들은 그 분야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번역 서비스 기술이 언젠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료 2)

인구가 똑같이 300만인 국가 A와 B가 있다. 매년 국가 A에서는 약 40,000명이 사망하고, 국가 B에서는 약 50,000명이 사망한다. 단순히 사망자 수만 가지고 국가 A와 B를 비교하면, 국가 A가 국가 B보다 오래 살기에 더 좋은 나라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A와 B가 처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국가 A보다 국가 B에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국가 A보다 국가 B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A에는 국가 B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국가 A에서는 사망자가 더 적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 나라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자료만 단편적으로 이용하여 추론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료 3)

‘대화적 관계’ 혹은 ‘대화적 삶’은 마틴 부버(M. Buber)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인간 관계와 삶의 현상들을 파악하며 진단하고 있다. 인간의 참다운 관계는 대화적 관계일 때 가능하며 그래서 대화적 원리를 인간 삶의 기본 원리로서 추구한다. 부버가 말하는 진정한 대화는 말로 하든지 침묵으로 하든지 대화의 참여자가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도에 귀를 기울여 둘 사이에 생동하는 상호성이 생기는 대화를 말한다. 그것은 ‘너’를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인 ‘너’를 진정으로 들으려고 한다. 부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이나 진행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주도되지 않고, 서로의 관계와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화나 대화적 삶은 반드시 상호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삼열, 「마틴 부버에서 본 대화의 철학」

(자료 4)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 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우리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답을 잘못 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 이청준, 「소문의 벽」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 가운데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4)를 분석하고, (자료 4)에 나타난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제시문 A>와 <제시문 B>는 공통적으로 대화과정에서 언어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맥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A>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화과정 중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언어는 어휘와 문장형성 규칙에 따라 구성된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제시문 B>는 의사소통 과정 중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언어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고 듣는 이가 주어진 상황을 무시한 채로 들리는 말을 이해한다면 화자가 전달하려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 가운데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제시문 A>는 (자료 1)을 분석하는데 적합하고 <제시문 B>는 (자료 2)를 분석하는데 더 적합하다.

(자료 1)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했을 때 이전의 언어가 가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도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번역기의 원리가 제시된다. 그 원리에 따라 문장 내의 단어를 전달하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꾸면서 번역하게 되면 수용자들이 정확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기의 원리는 논리적이고 올바른 어휘로 구성된 문장은 문맥 없이도 의미전달 기능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자료 2)는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수치적인 객관적 자료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주어진 자료에서의 B국은 A국보다 수치적인 사망률이 높아 좋은 나라라고 판단되기 어렵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 B국의 노년층과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 A국의 구체적 비율을 따져보면 B국의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A국의 사망률보다 낮을 수 있어 B국이 더 좋은 나라로 판단되어 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판단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 3>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4)를 분석하고, (자료 4)에 나타난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자료 3)은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와 삶의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람 간의 참다운 관계를 맺게 하는 진정한 대화적 소통을 위해서는 상호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교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 4)에서 제시된 상황은 대화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의 절망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는 그 순간에 화자의 어머니는 집을 찾아온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대화를 요구 당했다. 그 때의 “당신은 누구편이냐”는 질문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정성도 담겨있지 않고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말이었기 때문에 상호성도 없다. 이와 같이 (자료 4)는 전쟁으로 인해 삶의 기본적 원리인 대화가 잘못된 방법으로 강요되어지는 시대상의 아픔과 동시에 대화로 인해 상처를 얻은 개인의 아픔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이다. (자료 4)의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상대방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었다. 또한 집에 들어온 낯선 이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간인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물음에 대한 답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도 있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러한 진실된 관계에서는 각자 전달하려는 목적성 있는 말들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믿어진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겨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고 대화를 통해 삶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제시문 A>와 <제시문 B>는 공통적으로 소통과정에 있어서 언어가 발화자의 의도를 문맥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시문 A>는 문맥의 파악 없이도 언어가 명확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언어가 단어와 문장 구성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논리적 체계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가진다. 논리성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언어는 명확한 표현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오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제시문 B>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언어는 명확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문맥은 발화의 의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담화문맥, 즉 발화자의 의도를 무시하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문맥과 의미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정확한 간파를 할 수 있다. 언어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 가운데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자료 1)은 <제시문 A>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두 지문 모두 소통 과정에서 문맥의 파악 없이도 언어는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료 1)은 단어가 문장을 이루므로 단어의 연결만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번역이라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맥의 파악 없이 대응되는 단어의 대치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제시문 A>가 언어는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체계이므로 문맥의 파악 없이도 소통 수단으로써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본 것과 부합한다.

이에 반해 (자료 2)는 <제시문 B>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 옳다. 두 입장 모두 문맥의 파악 없이는 언어가 명확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료 2)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그래프 상의 수치만 보면 두 국가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제시문 B>가 구체적인 상황, 즉 맥락을 무시하면 결과의 왜곡이 생기고 원래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부합하는 것이다.

<문제 3>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4)를 분석하고, (자료 4)에 나타난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자료 3)은 진정한 대화의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성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발화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상대에게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려하는 존중감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또한 대화의 내용이나 진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소통과 참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 4)를 봤을 때, (자료 4)에서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은 과거 상황에 대해 기분 나쁨과 절망감,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낯선 사람은 적의 추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자료 안의 대화 상황에서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대답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대화라는 점에서도, 상호성이 없으며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 4)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진정한 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 제시문에 등장한 낯선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서로를 파악한 후, 자신이 무슨 의도를 갖고 대화를 하려는 것인지 밝히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요구한, 대화가 아닌 대답만을 듣고 한 번에 상대를 파악하면 안 된다.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의 '나'와 '어머니' 역시 대화에 참여해 스스로의 의견과 생각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상호성이 진정한 대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에 때문이다.